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최혜숙 이현림[†]
울산대송고등학교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2·3학년 남녀 학생 중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3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6명씩 배정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7)에서 개발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또래상담자가 실험집단에만 매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자아개념검사와 학교적응검사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그 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일반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아개념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교적응 하위영역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적응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또래집단상담, 학교 부적응 학생, 자아개념, 학교적응

최혜숙은 울산대송고등학교, 이현림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현림,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전화 : 053-810-3120 E-mail : hrlee@yu.ac.kr

인간은 한 개체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 속의 한 인간으로서 생활양식을 학습해 나간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은 교우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즉 부모, 교사, 교우, 그밖에 중요한 타인들 간의 관계형성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향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부모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정체성을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가야만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심리·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웃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Rogers(1951)는 인간의 행동은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며, 인간의 높은 적응력은 그 개인의 자아개념 여하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성격의 중심영역으로써 자아개념은 사람의 일상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자아개념과 적응행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역시 자아개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춘기라는 특별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사춘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개인의 여러 가지 고민과 정체감 혼란으로 인한 불안, 과도한 학업의 부담과 압력 등으로

학교적응에 힘들어하고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학교폭력 등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심리적 불안정,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구본용, 황순길, 김원중, 구혜영, 임은미, 1993; 이현림, 2000).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과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적응이라 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란 학생들이 자기의 욕구 충족이 저지 당하였을 때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 학생의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의 고민과 불안, 좌절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이현림, 2002).

그러나 청소년 범죄 및 문제 등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와 줄 전문상담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교사나 상담자보다는 또래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청소년들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들과 나누고 돕고 편안하게 해주고 공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Attili, 1990). 실제로 청소년들 행동에 또래 청소년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래상담자는 연령과 여러 조건이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여 또래들의 관심, 느낌, 생각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불안이나 고민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또래 상호 간의 깊은 일체감과 친밀감을 갖게 되고 시간과 장소의 다양함, 편안함

그리고 동료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는 매우 크다(홍경자, 김선남, 1986). 또한 비용절감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특징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또래에 의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Black & Scott, 1996). 따라서 또래상담은 소수의 상담전문가들의 기능 중 일부 기능을 다수의 비전문가인 또래들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또래들에게 확대·보급하자는 것이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다루는 문제 역시 청소년기의 보편적 발달과업인 학업, 진로, 가치관 탐색, 대인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수용, 문길린, 1990).

청소년기 동안 또래의 지지는 자기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가까운 친구의 지지보다 학급원들의 지지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Wintre & Crowley, 1993). 또래상담은 어느 연령층에나 활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기가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Urberg, Shyu, & Liang, 1990). 또래상담자 훈련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또래상담자 자신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둔 것과 다른 하나는 또래상담자들의 상담활동으로 인한 내담자들의 변화에 비중을 둔 것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또래상담자 훈련으로 인한 또래상담자 자신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요인은 인간관계 발달,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교우관계와 학교관련 태도 및 자존감과 관련된 것이다. Thompson(1984)은 초등학교 4학년이 유치원 원아들을 조력함으로써 인간관계에 도움을 얻었다고 보고하였고, Rapp, Dworkin 및 Moss(1978)는 중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후 자아개념과 학교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Bell(197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

담자 훈련 후 자아개념이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하였음을 보고하였다. Gray와 Tindall(197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arkhuff의 인간관계 모형에 따라 의사소통 훈련을 시킨 후 이들의 능력을 전문가들에게 평정한 결과, 훈련받은 집단이 훈련받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의사소통 지수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이 교실 밖에서 적절한 행동 모델의 역할을 하는 능력이 더 커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oi & DiLorenzo, 1993).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의 자아실현도가 변화하였음을 검증한 연구(홍경자, 김선남, 1986), 동료집단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자아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강진구, 1997),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훈련이 의사소통 능력, 상담자 평가, 호감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힌 연구(김광은, 1992)가 있다.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추석호, 1987), 또래상담훈련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을 밝힌 연구(고정숙, 2000), 교우관계 및 학급의 응집력 효과의 연구(한길자, 2000)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훈련경험이 인간관계와 학급관련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연구(남두현, 2001)가 있으며,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학습생활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8).

둘째로 또래상담자들의 상담활동으로 인한 내담자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보면, Schweisheimer와 Walberg(1976)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집단역동, 의사결정기술 등에 걸쳐 훈련을 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비슷한 또래집단에 20회 집단상담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후 이들에게 상

담을 받은 내담자들의 변화를 자아개념을 비롯하여 16개의 요인을 살펴 본 결과, 훈련집단의 내담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출석 및 의사결정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Canning(1983)은 또래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rouse(1985)가 소수 인종 학생을 위하여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던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자존감, 정서적 지지, 학업성취, 지적 능력, 학교생활 몰입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고, Bowman과 Myrick(1987)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2·3학년 학생들이 학습행동과 학교관련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해 이루어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Fors & Jarvis, 1995), 친구 괴롭힘 방지를 위한 또래상담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고(Salmivalli, 2001).

국내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주도하에 집단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의 자아개념이나 자존심이 전문가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이형득, 김정희, 1983; 홍경자, 노안녕, 1985)가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김태창, 198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유현식, 1989) 등이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 척도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김명주, 1997; 김진희 등, 1999; 이상희 등, 2000)과 또래상담자들이 학급 내의 다른 또래들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구본용 등, 1998), 또래상담 훈련만으로는 또래들이 소속한 집단의 응집력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김광은, 1992; 이상희 등, 2000) 등이 있

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또래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부적응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제기되는 연구가설은 첫째, 또래상담자에게 집단상담을 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아개념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또래상담자에게 집단상담을 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학교적응이 향상될 것이다.

방 법

대상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자

사전 홍보를 통하여 또래상담자 훈련에 스스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울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여덟 명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2학년말 성적이 10% 이내에 속하며, 품행이 바르고 모범적이며, 적당한 지도력을 갖춘 학생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었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남	8	8	16
여	8	8	16
계	16	16	32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내담자는 울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3학년 남녀 학생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끔 일탈행동(흡연, 음주 등)을 하는 소수의 학생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집단상담을 신청한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자아개념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검사

또래집단상담 실시 전 학교적응 수준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

자아개념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개념검사는 송인섭(1999)이 제작한 중·고등학교용으로 2차 개정, 표준화

표 2. 자아개념 사전검사

영역 \ 집단	실험집단 (n=16)		통제집단 (n=16)		t
	M	SD	M	SD	
일반자아개념	2.35	0.38	2.43	0.33	-0.65
학급자아개념	2.65	0.33	2.61	0.30	0.39
성취자아개념	2.16	0.36	2.14	0.33	0.15
능력자아개념	2.34	0.34	2.39	0.31	-0.44
학문자아개념	2.38	0.26	2.37	0.23	0.02
사회자아개념	2.59	0.37	2.53	0.35	0.54
가족자아개념	3.41	0.43	3.39	0.39	0.13
중요타인자아개념	3.00	0.29	2.96	0.25	0.46
정서자아개념	2.38	0.44	2.40	0.38	-0.14
신체자아개념	2.00	0.46	2.03	0.44	-0.20
정의자아개념	2.20	0.34	2.23	0.36	-0.21
전체	2.50	0.17	2.51	0.16	-0.07

표 3. 학교적응 사전검사

영역	집단	실험집단 (n=16)		통제집단 (n=16)		t
		M	SD	M	SD	
교사관계		3.01	0.38	2.90	0.35	0.78
교우관계		3.30	0.49	3.55	0.48	-1.17
수업태도		2.92	0.50	2.82	0.35	0.67
학교규칙		2.78	0.60	2.79	0.45	-0.04
전체		3.00	0.20	3.01	0.21	-0.03

한 것이다. 검사 I 은 일반자아개념으로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일반적인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 I 만을 사용하였다. 일반자아개념은 자아개념의 모형에서 하위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특성이다. 이 검사의 하위영역은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의 세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69~.88이었다.

학교적응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학교적응검사는 김호권(1969)의 표준적응검사와 유상철(1982)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검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중학생에게 알맞게 수정·보완한 검사로서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하위 영역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네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과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 사용된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원(1998)에서 개발한 ‘청소년 또래상

담자 훈련프로그램 V’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7)에서 개발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의 사전검사 결과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결과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그 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결 과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과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	
	부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1	1부 (들어가기)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①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소개 ② 자기 소개하기 ③ 별칭 짓기 ④ 친밀감 형성하기 (게임)	▶내 마음 별칭 짓기	① 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개방을 시도한다. ② 내 마음을 이해 받는 뿌듯함을 맛본다. ③ 공감적 반응을 연습한다.
2		▶나는 누구? ①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탐색 ② 자긍심과 자애심 갖기 ③ 가치관 명료화하기	▶자화상 그리기	① 자화상을 그려봄으로써 자신을 알게 된다. ②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3	2부 (친한 친구되기)	▶친구의 의미 ① '진정한 우정' 비디오 감상 ② 친구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③ 나의 친구관계 돌아보기	▶악어가 살고 있는 강	① 사람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②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하며,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4		▶좋은 친구 되기 ① 친구관계 결립돌 파악하기 ②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역할극	▶누구를 태울 것인가?	① 구성원의 가치관, 인생관의 차이 점을 파악하고 공통점을 탐색하며 현명한 해결책을 수립한다. ② 자기를 인식하고 자아개념을 정립한다.
5	3부 (대화하는 친구되기)	▶친구의 마음 이해하기 ① 대화의 기본 자세 배우기 ② 관심 기울이기 ③ 친구의 마음 이해하기 연습	▶건강을 해치는 담배	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6		▶친구의 마음 이해하기 ① 공감적 대화 배우기 ②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③ 친구와 함께 연습하기	▶약물 오·남용 방지	① 약물남용의 이유를 파악한다. ② 약물남용의 무서운 결과를 안다. ③ 약물남용으로 인한 해독성을 배운다.
7		▶친구의 마음 이해하기 ① 내 마음 전달하기 ② 친구와 함께 연습하기 (역할극) ③ 갈등 사례 다루기 ④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방법 배우기	▶거울 되어 보기	① 단체 게임을 통하여 놀이의 즐거움을 안다. ② 다양한 사고의 필요성을 경험한다. ③ 함께 협력해야 문제가 풀림을 깨닫는다.
8	4부 (도움주는 친구되기)	▶친구의 문제 도와주기 ① 우리들의 고민 이해하기 ② 친구 고민 풀어가기 ③ 친구와 함께 고민 풀어가기	▶역할극	① 짧은 시간에 종합예술의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② 각자의 소질 발견과 연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③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9		▶친구의 문제 도와주기 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 ② 고민 해결시의 점점 사항	▶나를 사랑해요	①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자긍심을 갖는다. ②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
10		▶친구의 문제 도와주기 ① 제시된 상황에서 친구를 돕는 방식 토의하기 ② 역할극을 통해서 반응하기	▶자성예언	① 자아혁신의 계기가 된다. ② 자아실현 의지를 고양하게 된다.
11	5부 (마무리 및 평가)	▶종합 실습 ① 세 명이 한 조로 모의상담 실습하기	▶소감문 쓰기	① 집단상담 과정에서 새로 깨달았거나 배운 것, 느꼈던 점을 실제 생활에 적응하는 마음을 기른다.
12		▶정리하기 ① 프로그램 정리 및 평가하기 ② 집단원들 간에 피드백 주고받기	▶정리하기	사후검사 및 마무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 분석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자아개념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78)이 통제집단의 평균(M=2.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급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94)이 통제집단의 평균(M=2.6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인 학문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63)이 통제집단의 평균(M=2.4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취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37)이 통제집단의 평균(M=

2.1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능력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57)이 통제집단의 평균(M=2.3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3.12)이 통제집단의 평균(M=2.5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족자아개념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67)이 통제집단의 평균(M=3.3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인 중요타인자아개념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40)이 통제집단의 평균(M=2.9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73)이 통제집단의 평균(M=2.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인 정의자아개념에서도 실험집단

표 5.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 분석

영역	집단	실험집단 (n=16)		통제집단 (n=16)		t
		M	SD	M	SD	
일반자아개념		2.78	0.29	2.44	0.34	3.04**
학급자아개념		2.94	0.24	2.60	0.31	3.39**
성취자아개념		2.37	0.29	2.19	0.38	1.47
능력자아개념		2.57	0.22	2.38	0.38	1.77
학문자아개념		2.63	0.16	2.40	0.25	3.13**
사회자아개념		3.12	0.29	2.52	0.31	5.61**
가족자아개념		3.67	0.24	3.31	0.40	3.09**
중요타인자아개념		3.40	0.20	2.92	0.23	6.24**
정서자아개념		2.73	0.24	2.37	0.39	3.18**
신체자아개념		2.09	0.43	1.95	0.43	0.94
정의자아개념		2.43	0.29	2.17	0.36	2.25*
전체		2.80	0.13	2.49	0.19	5.51**

* $p < .05$, ** $p < .01$

의 평균(M=2.43)이 통제집단의 평균(M=2.1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자아개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2.09)이 통제집단의 평균(M=1.9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M=2.80)이 통제집단(M=2.4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집단의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비교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자아개념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35)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78)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급자아개념에서 사전검사 평균(M=2.65)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94)이 높게 나타났으며, 능력자아개념에서 사전검사 평균(M=2.34)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57)이 높게 나타났고, 상위개념인 학문자아개념에서도 사전검사 평균(M=2.38)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6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취자아개념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16)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37)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아개념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59)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12)이 높게 나타났으며,

표 6. 실험집단의 자아개념 사전·사후 검사 비교

영역	검사시기	사전(n=16)		사후(n=16)		t
		M	SD	M	SD	
일반자아개념		2.35	0.38	2.78	0.29	-3.63**
학급자아개념		2.65	0.33	2.94	0.24	-2.89**
성취자아개념		2.16	0.36	2.37	0.29	-1.78
능력자아개념		2.34	0.34	2.57	0.22	-2.35*
학문자아개념		2.38	0.26	2.63	0.16	-3.17**
사회자아개념		2.59	0.37	3.12	0.29	-4.47**
가족자아개념		3.41	0.43	3.67	0.24	-2.20*
중요타인자아개념		3.00	0.29	3.40	0.20	-4.52**
정서자아개념		2.38	0.44	2.73	0.24	-2.80*
신체자아개념		2.00	0.46	2.09	0.43	-0.55
정의자아개념		2.20	0.34	2.43	0.29	-2.00
전체		2.50	0.17	2.80	0.13	-5.80**

* p<.05, ** p<.01

가족자아개념에서 사전검사 평균(M=3.41)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67)이 높게 나타났고, 상위개념인 중요타인 자아개념에서도 사전검사 평균(M=3.0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40)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자아개념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38)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73)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자아개념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0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09)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개념인 정의자아개념에서 사전검사 평균(M=2.2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43)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개념의 전체 평균은 사전검사 평균(M=2.5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2.80)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을 실험집단에 실시한 결과 대체로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남으로 자아개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분석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사관계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3.32)이 통제집단의 평균(M=2.8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우관계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73)이 통제집단의 평균(M=3.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태도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18)이 통제집단의 평균(M=2.8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학교규칙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M=3.08)이 통제집단의 평균(M=2.8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M=3.33)이 통제집단(M=2.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비교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8

표 7.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분석

영역	집단	실험집단 (n=16)		통제집단 (n=16)		t
		M	SD	M	SD	
	교사관계	3.32	0.32	2.82	0.33	4.45**
	교우관계	3.73	0.24	3.44	0.40	3.05**
	수업태도	3.18	0.30	2.84	0.29	3.27**
	학교규칙	3.08	0.36	2.86	0.40	1.64
	전체	3.33	0.15	2.99	0.21	4.97**

**p<.01

표 8. 실험집단의 학교적응 사전·사후 검사 비교

영역	검사시기	사전(n=16)		사후(n=16)		t
		M	SD	M	SD	
교사관계		3.01	0.38	3.32	0.32	-2.64*
교우관계		3.30	0.49	3.73	0.24	-3.67**
수업태도		2.92	0.50	3.18	0.30	-1.78
학교규칙		2.78	0.60	3.08	0.36	-1.70
전체		3.00	0.20	3.33	0.15	-5.04**

* $p < .05$, ** $p < .01$

과 같다.

교사관계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3.01)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32)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우관계에서 사전검사 평균(M=3.3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7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업태도에서는 사전검사 평균(M=2.92)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18)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규칙에서 사전검사 평균(M=2.78)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08)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사전검사 평균(M=3.0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M=3.33)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집단상담을 실험집단에 실시한 결과 대체로 사전과 사후검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남으로 학교적응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자아개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의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취자아개념과 능력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개념 전체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아개념이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또래집단상담이 친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적용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태도를 타인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자아개념 자체가 단기 간의 훈련으로 그 변화를 측정해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은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스스로 변화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래집단상담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

이 향상되고, 그들이 적극적이고 협동적이며 책임있는 학습생활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추후지도와 면담을 통해 또래집단상담 활동 과정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보람을 느끼거나 좋았던 점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된 점, 자신감과 자존감의 향상, 친구와 학급에 대한 봉사 등을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Canning, 1983; 이형득 등, 1983; 홍경자 등, 1985; 김태창, 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집단상담이 전문가에 의한 상담효과와 비슷하며, 그 원인은 또래상담자들이 지니는 편안함, 이해와 수용의 용이함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이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교규칙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내담자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소 규칙적이고 불편한 점에 대해 적응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향상되는 추세여서 추후상담을 통하여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적응 전체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교적응이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상담이 개방적이고 편안하며 신뢰로운 분위기에서 적용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

을 이해하고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친구들의 마음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공동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래집단상담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학습생활에 대한 적극성, 협동심, 책임감 등 지지적이고 친밀한 교우관계 및 개방적이고 공감적인 학습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Canning, 1983; Crouse, 1985; Nenortas, 1987; Bowman et al., 1987)의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요선도 학생들을 도움으로써 학업중도포기를 예방하고자 한 현장 연구에서는 요선도 학생들의 변화 외에도 요선도 학생의 학부모들이 또래상담 활동의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연구(유경재, 1998)와 8학년 또래상담자들이 6학년 문제행동 학생들에게 학교출석, 학교성적,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Tobias & Myrick, 1999), 또 학교 장면에서 또래상담을 활용한 개입전략을 장기간 연구한 결과, 또래집단의 강력한 힘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학교에 대해 성숙한 견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학교폭력, 비행,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들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연구(Rosenberg, McKeon, & Dinero, 1999)와도 본 연구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집단따돌림 현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또래상담자의 활용

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또래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실험설계에서 성인 지도자와 또래상담자가 동일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또래상담자의 변화를 측정하여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또래상담자의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집단상담과정에서 내담자들의 질적 변화에 대하여 사례별 또는 회기별로 주요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자아개념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지도를 위한 더 많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추후연구에서는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한 추후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면 더욱 유익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진구 (1997). 동료집단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의 효

과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숙 (2000). 또래상담 훈련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분용, 황순길, 김원중, 구혜영, 임은미 (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구분용, 이숙영, 송수민, 이상희 (1998).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V.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광은 (1992).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주 (1997). 교육과정 내 클럽 활동으로서의 또래상담자 훈련 및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이상희, 노성덕 (1999). 또래상담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태창 (1986). 또래에 의한 집중적 집단상담이 남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권 (1969). 표준적응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남두현 (2001). 또래상담 훈련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학급관련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7). 학교적응 교육프로그램.
 송인섭 (1999). 자아개념 진단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유경재 (1998). 또래상담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요선도 학생의 학업중퇴자 예방 방안. 현장교육논문, 교원총연합회.
 유상철 (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 태도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식 (1989).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이지은, 노성덕 (2000). 학교 현장에서의 또래상담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수용, 문길린 (1990).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집단 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도상담, 14, 1-42,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현림 (2000).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이현림 (2002). 생활지도.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형득, 김정희 (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41-63,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추석호 (1987). 동료집단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8). 청소년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V.
- 한길자 (2000). 또래상담 훈련이 교우관계 및 학급의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김선남 (1986). 또래상담자 경험이 또래상담자 자신의 자아실현도, 인간관계능력, 자기발표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8, 43-59,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경자, 노안녕 (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17, 75-99,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ttili, G. (1990). Successful and disconfirmed children in the peer group: Indices of social competence with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33, 238-249.
- Bell, C. M. (1977). *Changes i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peer counselors in an urban school distri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Black, D. R., & Scott, L. A. (1996). Lay opportunities collaborative outreach screening team(LO-COST): A model for peer health education. *Peer Facilitator Quarterly*, 13, 29-38.
- Bowman, R. P., & Myrick, R. D. (1987). Effects of an elementary school peer facilitator program o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The School Counselor*, 34(5), 369-378.
- Canning, J. (1983). Peer facilitator projec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18(2), 124-129.
- Crouse, R. (1985). Using peer network therapy with a residential program for Chicano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549-550.
- Doi, S. C., & DiLorenzo, R. M. (1993). An evaluation of a tobacco use education-prevention program: A pilot study. *Journal of Substance Abuse*, 5, 73-7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rs, S. W., & Jarvis, S. (1995). Evaluation of peer-led drug abuse risk reduction project for runaway/homeless youths. *Journal of Drug Education*, 25, 321-333.
- Gray, H. D., & Tindall, J. A. (1978). *Peer counseling : An in-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 IN: Accelerated Development.
- Nenortas, G. V. (1987). *A drop-out prevention program utilizing peer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alternative students*. Nova University (EDRS 289 118).
- Rapp, H. M., Dworkin, A. L., & Moss, J. L. (1978). Student-to-student helping program. *The Humanist Educator*, 81-90.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S. L., McKeon, L. M., & Dinero, T. E. (1999). Positive peer solutions. *Phi Delta Kappan*, 81(2), 114-119.
- Salmivalli, C. (2001). Peer-led intervention campaign against school bullying: Who considered it useful, who benefited? *Educational Research*, 43(3), 263-278.
- Schweisheimer, W., & Walberg, J. W. (1976). A peer counseling experiment : High school students as small-group lead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4), 398-401.
- Thompson, C. L. (1984). Problem-solving plays and children helping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18(4), 297-303.
- Tobias, A. K., & Myrick, R. D. (1999). A peer facilitator-led intervention with middle school problem-behavior stud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1), 27-34.
- Urban, K. A., Shyu, S. J., & Liang, J. (1990). Peer influence in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ddictive Behaviors*, 115, 247-255.
- Wintre, M. G., & Crowley, J. M. (1993). The adolescent self-concept: A functional determinant of consultant prefer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4), 369-383.

원 고 접 수 일 : 2003. 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20

게 재 결 정 일 : 2003. 6. 7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Students

Hey-Sook Choi

Ulsan Daesong High School

Hyun-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ho failed to adapt themselves to school life.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er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 of school-maladjusted students.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on the school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students. Eight boy and girl students in their third year from a middle school in the city of Ulsan were selected as peer counselo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 students in their second or third year in a middle school from the city of Ulsan, who failed to adapt themselves to school life and applied for peer group counseling.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with 16 students each.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concept posttest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gener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significant others self-concept, affective self-concept, and overall self-concept areas. Second, the school adjustment post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a significant change in relationship with teachers, social relations and learning set, and their overall school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Key Words : peer group counseling, school maladjusted students,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